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인류는 오래 전부터 아픔을 줄여 주는 약을 간절히 원했다. 옛사람들은 버드나무 껍질을 뺏거나 즙을 내어 사용하며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기원전 1500년쯤 기록된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버드나무 잎차를 산모에게 마시게 했다고 하며, 히포크라테스도 버드나무 잎의 진통 효과를 알고 환자들에게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버드나무 껍질은 맛이 쓰고 심한 위장장애를 유발하며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약 성분만 추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초, 버드나무 껍질을 갈아서 생긴 침전물에서 약효의 주성분 물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 버드나무의 학명 '살릭스'(Salix)에서 이름을 가져와 '살리신'(Salicin)이라 하였다.

이후 더 순수하고 안정적이며 부작용 없는 약물 개발을 위한 연구 끝에 마침내 화학적으로 살리실산을 대량 합성하기에 이르렀지만 심한 위장장애 등 부작용과 고약한 맛 때문에 살리실산은 여전히 상용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1897년 독일 바이엘사 연구원 펠릭스 호

아스피린

프만이 류마티즘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위해 부작용과 역한 맛을 대폭 줄인 아세틸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아세틸의 머릿글자 에이(A)와 살리실산의 별명인 스피산의 스피(spir)를 합하여 '아스피린'(Aspirin)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1899년 특허 출사된 아스피린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되었고, 덕분에 바이엘사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하였다.

20세기 초 스페인독감 대유행 때 아스피린은 독감 증상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면서 명약의 입지를 굳혔다. 또한 1969년 달착륙선 아폴로 11호 비행사를 따라 우주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스피린이 왜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드디어 1971년 영국인 존 베인 박사가 작용기전(作用機轉)을 밝혀냈다. 베인 박사는 198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아스피린의 기적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해열·진통·소염 작용뿐만 아니라 각종 암 발병률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과 임신 중독증 예방 등 새로운 가능성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소판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혈액 응고를 막아서 뇌경색·협심증·심근경색 등 심각한 병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효능 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위장장애는 아스피린의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다. 2016년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 분석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

에서 주요 위장관 출혈은 59%, 뇌출혈은 33%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근경색증은 22%, 사망률은 6%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대유행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칠 시간이 없어 급하게 사용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작용은 다른 백신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며 '희귀 혈전증'(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 부위 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은 이름처럼 '매우 희귀'하여 백신의 유용성에 비해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으로서는 백신 접종 외에는 코로나19를 물리칠 방법이 전혀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나 치료는 없다. 다만 치료의 유익함이 위해성보다 훨씬 클 때 우리는 그 약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이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때로 쓰일 작료를 하지 않고서는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없듯이, 부작용이 무시워서 백신을 기피하면 우리는 코로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종교칼럼

'바람만이 아는 대답'



중현 광주 침상사 주지

내가 태어난 그해에 밥 달린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이번엔 존 바에즈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불 속에서 잠이 깬 순간,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참 머릿속 노래를 듣고 있다가, 일어나 유튜브를 뒤졌다. 존 바에즈의 노래가 익숙한 터라 1978년도 그녀의 콘서트 영상을 보았다. 뻔뻔하게 모여 말없이 앉전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요즘의 산만하기 짝이 없는 21세기의 인류에 비하자면 불과 반세기 전이지만 일상이 차분하다. 존 바에즈의 목소리로 듣다가, 밥 달린의 목소리로 듣다가... 여러 차례 듣다 보니 새벽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내가 자라던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팝송이 대부분이어서 나 역시 팝송을 들으며 자랐다. 사이먼 앤 가펩클, 닐 다이아몬드, 존 바에즈... 이 사람들 이름 석자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 이 새벽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유 없이 옆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일상이 증오'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띈다. 그냥 '패스', 기사는 바람처럼 나를 스치듯 지나간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70년대, 80년대에 한 마음으로 갈망했던 것이이토록 가깝고도 천박한 삶이었을까? 밥 달린, 존 바에즈, 그리고 '이 산하에'를 정말 멋지게 부르던 노릇사 시절의 김광석이가 그토록 같구하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회한이이토록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는데, 어찌 마음이 덤덤할 수 있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햇살이 기분 좋게 일렁이는 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들던 10대 시절의 나를 상상한다. 슬픔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노도 아닌 그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삶에 대한 후회인 듯하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환멸 같기도 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 같기도 하다. 복잡미묘한 감정이 가슴 아래 저 깊은 곳에서 파도친다. 그렇다. 파도는 표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파도는 저 깊은 바다 속에서도 격하게 휘몰아 친다. 이 새벽에 내면의 깊은 심연에 파도가 쳐서 내 몸을 '쿵쿵' 하고 때린다.

명하게 존 바에즈를 듣고 있자니, 유튜브에서 그녀가 부르는 다른 노래들이 연이어 나온다. 그녀는 40년이 지난 2018년에도 기타를 메고 라이브로 노래한다. 머리카락 색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약간 거칠어지고, 등이 조금 앞으로 굽고, 덩치가 제법 왜소해진 것 말고

는 달라진 건 없다.

의외의 사실이지만 감정은 상식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격양되고 분노하고 흥분해야 마땅한 상황엔 오히려 무덤덤하다. 반면 별것 아닌 일엔 마음이 몹시 복잡해지곤 한다. 이 새벽에 존 바에즈를 듣다가 깊은 회한에 잠겨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그런 경우다.

새벽 예불 나갈 시간이다. 존 바에즈를 그냥 틀어놓고 예불을 나간다. 다시 돌아올 방에서 그녀가 날 반겨주길 바라면서, 나는 새벽 예불을 나간다.

부처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맞죠? 이걸 아니지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번 생은 뭔가 고장난 것 같다. 나 혼자 잘못해서라기 보다, 모든 삶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냥 몽둥겨려서 21세기의 인류가 고장 난 것 같다. 그렇다고 반쯤 팔 수도 없다. 환불 불가라 해도 반쯤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반쯤하고 싶지만, 우리네 삶은 반쯤 불가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물러설 곳 없는 외길 인생을 아슬아슬 헤쳐 왔다. 엉망진창에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걸어온 길이다. 고장 나고 삐걱거릴지라도, 하 나쁜일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삶이다.

다시 오월이 지고 있다. 살아야겠다. ※ '바람만이 아는 대답' ('Blowing in the wind')은 밥 달린이 1962년 발표한 노래로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천변 산책



조귀임 전 초등학교 교사

구름 한 점없이 쾌청한 날씨, 봄 햇살이 함께해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다. 광주천변을 산책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든다. 산책로 옆엔 큰 도랑물이 흐르고 초목으로 무성한 나무들의 싱그러움 속에 작은 새들의 청아한 재잘거림이 사랑스럽다. 예서 저서 온갖 들꽃들이 바람을 타고 살랑거리는 모습이 정겹다. 꽃 속을 날라드는 벌과 나비들의 날갯짓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천변 산책로 양쪽에는 어른 키보다 더 자란 강아지풀들이 울타리를 이루어 불어오는 바람에 물결처럼 일렁인다. 지천으로 피어 섰노란 꽃물결을 일으키는 마더리리과 들성들성 피어낸 유채꽃이 발길을 붙잡는다. 유

채꽃은 줄기가 통통하고 부드러운데 마타리는 가늘고 뾰뾰하며 키도 엄청 크다. 날마다 나를 보고 웅크리는 꽃 무리 덕분에 발걸이 사뿐사뿐 가볍고 경쾌하다. 화사한 봄꽃들의 향연이 싱그럽기만 하다.

팔랑팔랑 한들한들 때깔 고운 수레국화꽃은 진남색 별 모양인데 봄 정취를 머금고 가는 허리를 흔들며 한껏 몸 매무새를 다듬는다. 찬란한 햇살이 어루만지면 따가운 듯 한사코 강아지풀 품속으로 몸을 숨긴다. 꽃말은 행복감이다. 저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섯노란 에기똥풀은 꽃대를 자르면 노란 액체가 나오는데 그 색깔이 에기똥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꽃말은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다. 요즘 한창 피고 지는 노란 꽃장포는 광주천변 양쪽 물가에 군락지를 이뤄 그 행렬이 화려하고 기품 있게 이어진다. 보라색 꽃장포도 그 대열에 함께한다. 꽃말은 '당신을 믿는다'이다.

또한 천변에는 까치와 비둘기떼, 참새떼들이 서식한다. 한동안 집에 있는 쌀을 가방 가득 담아서 비둘기 먹이를 줬다. 눈치 백단인 비둘기떼들이 멀려서 나를 보고도 푸드덕 푸드덕 날개를 치며 길바닥에 내려앉아 허겁지겁 모이를 쪼아 먹는 모습이 기분이 흠뻑했다. 참

새떼들도 몰려와 같이 먹겠다고 종종거리며 모이를 쪼아 다녔다.

얼마 전 누군가가 섬섬옥수 고운 손길로 천변 화단에 패랭이꽃과 미니 메리골드꽃을 심어서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 고운 마음씨에 감격했다. 한데 패랭이꽃을 뽑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시민의식이 아쉽다. 뒤편에서 물뿌리개로 꽃에 물을 흠뻑 뿌려 주는 아저씨들에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넨다.

꽃 모양이 계란프라이 같아 일명 '계란꽃'이라 불리는 개망초가 고개를 가웃가웃하며 반긴다. 풀밭에 양탄자처럼 짙 갈린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어릴 때 꽃을 꺾어 시계나 반지, 꽃목걸이를 만들어 놀던 기억이 새롭다. 나팔꽃을 빼닮은 매꽃은 온종일 연분홍·진분홍 꽃송이를 달고 줄기를 감고 올라가며 오가는 이들에게 윈크를 하는, 애교가 절절 넘치는 귀여운 꽃이다. 풀밭이 온통 매꽃 천지다.

광주천변 산책은 이처럼 나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최고의 일상이다. 내일도 나는 나를 찾아가는 넉넉함으로 천변 산책에 나설 것이다.

社說

안전시설 미비 산업현장 이리 불안해서야

최근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나주에서 건물 외부 창틀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5월에는 광양 생산업체에서 한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와 절단기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광주·전남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광주 일곱 명, 전남 아홉 명 등 모두 열여섯 명에 이른다. 매주 한 명씩 산업재해로 인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노동자들이 사지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도 3468건(건설업 2131건, 제조업 1337건)이나 적발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2690개 산업현장을 점검한 결과다. 이중 건설업의 경우 추락사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미비가 1750건(82%)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역시 컨베이어, 프레스, 분쇄·파쇄기 등

현장 설비나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594건이나 됐다.

이번 공단의 점검을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위험 요인이 널리 있음이 밝혀졌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제대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재판부가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 소홀로 추락 중상 사고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주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노동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대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당국이 산업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죄도 좋지만 노태우 회고록 수정이 먼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의 잦은 광주 방문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2019년 이후 수차례 광주를 방문하면서 5·18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재현 씨가 처음 광주를 방문한 것은 2019년 8월이다. 당시 그는 곡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면서 아버지 노태우의 뜻이라고 밝히고 사죄했다. 이에 대해 뜻이라고 밝히고 사죄했다. 이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라"고 권유하자 노 씨는 석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지난해 5월에도 5·18묘지를 찾아 참배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한화했다. 노 씨는 또 지난 4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지난 며칠 전에는 충장로에서 연극 '어느 봄날의 약속'을 관람하기도 했

다. 연극 속 실제 주인공인 이지현 전 5·18부상자동지회 회장의 초청에 의한 관람이었지만 정작 관람객들의 강한 반발로 총총히 돌아서야 했다.

노 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잦은 광주행이 오해받지 않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그 첫 단추는 5·18의 원인을 '유언비어 때문'이라고 적시한 노태우 회고록을 수정하는 일이다. 5월 단체의 주장처럼 회고록의 역사 왜곡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주 광주를 찾아 사죄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노 씨는 지난해 7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잦은 광주행의 배경이 정치 입문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단 1%도 뜻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아버지 회고록부터 수정한 뒤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비로소 광주 시민들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현대사의 비극은 대부분 전쟁에서 비롯되는데, 학술과 인권 침해는 전쟁이나 독재국가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진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 역사는 휴머니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3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나 거론됐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모두 반인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 시작은 용기 있는 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지난

용기 있는 증언

1991년 김학순(1924~1997년) 씨가 세계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국내는 물론 필리핀·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김학순 씨는 17세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4개월 만에 탈출했다. 이후 가정도 이렇지만 순탄치 않은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증언을 결심한 것은 지난 1990년 6월이다.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운영했을 뿐 일본군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발표에 분함을 참을 수 없었

던 것이다. 위안부 탈출 후 50년을 고통 속에 살았던 김 씨는 증언 이후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여생을 바쳤다.

현대사에서 미국의 가장 큰 굴욕은 베트남 패배이며, 전쟁 중에 있었던 '미라이 학살'은 양민 학살이라는 점에서 미군의 지울 수 없는 수치로 꼽힌다. 미군은 1968년 3월 16일 남베트남 마리아에서 504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임신부와 유아·어린이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군부의 엄격한 통제로 1년간 철저히 은폐됐다. 하지만 당시 중군기자들 비롯한 언론의 노력과 학살에 가담했던 병사의 양심선언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인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가해자인 계엄군들의 의미 있는 증언이 많았다. 특히 저격수였던 한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장갑차 위에서 지시에 따라 조준경으로 청년의 목을 겨냥해 쏘았다고 증언했다. 자위권 차원이 아닌 의도적 살상임을 입증하는 증언이다. 80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계엄군들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서 주길 바란다. /재희회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